

2019년 겨울호

제97호 2019년 11월 25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

발행인 · 박형대 / 편집인 · 이경건 / 학생기자 · 이은혜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촌교회 / TEL · 888-9111 / FAX · 888-9112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2019년 2학기

종강예배

11월 25일 (월) 오후 6시

문화관 중강당

설교: 박영덕 목사 (주은혜교회 담임)
말씀: 바울 사도의 권면 (빌립보서 4장)

f :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i : snu_christianunion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종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종강예배가 11월 25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종강예배는 박영덕 목사님(주은혜교회 담임)께서 말씀을 전해주시 예정이다. 예배 후에는 예술계 식당에서 단대별로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감사칼럼 ... 최은선 간사
- 2면 중앙위원의 글 ... 최민호
진나빛 투고글 ... 김혜진
- 3면 신앙오티 준비팀원의 글 ... 권영찬
신앙오티 준비팀원의 글 ... 김선우
- 4면 뽕나눔 특별기사 ... 조지은, 홍영서
- 5면 연합총애틜 특별기사
- 6-7면 학문과 신앙 행사
독자기고란
- 8면 2019-2 개강예배 이모저모

감사칼럼

예수로 인해 빛나는 우리의 삶



나무에서 생초와 풀을 사들고 인문대 큰 나무 밑에 앉아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버들골에서 하는 순모임 등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이 커져서 쌓여갑니다. 장소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렇게 캠퍼스를 좋아하게 된 것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나눴던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도 순원과 함께 순모임 시간을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눕니다. 대부분의 서울대 아이들은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고 진로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진로, 시간, 열심, 스펙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기 위해 모인 아이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있는 아이들의 삶에는 변화와 힘이 있습니다. 순모임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가며 경험한 어려움을 나눕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다시 도전을 받고 그 삶을 살아냅니다. 순모임에는 씨름의 눈물이 있고 그 눈물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과 동시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을 위해 중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비량 사역으로 이뤄지는 선교단체 간사의 특성상 후원자 개발을 정기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저에겐 후원자 개발이 피하고만 싶은 높은 산처럼 느껴집니다. 하루는 네 번을 연달아 거절당해 마음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 날 따라 쌀쌀했던 날씨의 광화문을 지나며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짜증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시면서...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화에 재정을 쓰겠다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라며 눈에 가득 차오르는 눈물을 꾸역

꾸역 참아가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힘겹게 걸었습니다. 그러다 '은선아, 네가 그렇게 무시와 거절을 당하고 비아냥을 받아도 나를 위해 이 삶을 살아줄 수 있겠니?'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며 '당신의 사랑에 전 항복이에요. 비아냥을 받더라도 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캠퍼스에서 예비 사역동역자를 만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은선아, 나는 내 주위에 너처럼 하나님의 빛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 네가 그 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나 익숙한 캠퍼스의 카페에서 전해 듣는 진심 어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많은 사람의 후원을 받는 것,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저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의 관악에서의 시간이 저에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간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한없이 찢질하고 지우고 싶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이들을 얻어갑니다. 저와 사랑하는 서울대CCC지체들이,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기도해주세요.

최은선 간사(CCC)

중앙위원의 글

역중! 역시 중앙위 :)



대학 입학 후, 글과는 조금 먼 삶을 살고 있는 저였기에 진나빛에 글을 써달라는 제안이 솔직히 조금은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제가 ‘중앙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혹시나 ‘중앙위’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하면, 중앙위는 “서울대의 복음화와, 교내 공동체들의 견고함을 위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교내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서울대 기독교 연합(줄여서 서기연) 내 중앙위원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비록 중앙위로 섬긴지 한 학기 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위로서 보낸 짧은 시간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중앙위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한 학기 중앙위로서 섬겨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대표님의 제안에 고민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저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었기에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가 조금 줄더라도, 직접적으로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교내 지체들과 공동체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귀한 섬김이겠다는 생각에 결국 섬기게 되었던 것 같네요.

실제로 고민했던 바와 같이 중앙위를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대가지불이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아

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있어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은혜도 많았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공동체만 보였던 과거와 달리, 캠퍼스의 상황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캠퍼스 내 많은 지체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물론 도무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맡겨진 일들을 잊어버리고 빼먹는 허당인 제게 있어서 훈련의 시간이 되기도 했지요.

어쩌다보니 제 이야기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사실 중앙위는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하기 때문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을 타 저희 중앙위 자랑을 좀 하면, 분명히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런 것일까요?



(요일 4: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참 사랑이 많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수고할 수 있음에, 또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 같네요.

그리하여 이처럼 제가 느꼈던 중앙위를 바탕으로 처음에 소개해드린 중앙위를 제가 생

각하는 대로 새롭게 정의해보면, 중앙위는 “서울대를 사랑함으로 서울대의 복음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서울대 내 영혼들과 지체들, 공동체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고뇌하고 수고하는 사랑 넘치는 공동체이자 가족”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앞서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멋진 대표 예나 누나! 세상에 없는 촌데레,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자훈이 형! 진짜 인싸, 중앙위 웃음 담당 센스쟁이 인비 형! 희락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것만 같은, 하이 텐션 영서 누나! 중앙위를 한 가족으로 만든 매력쟁이 중앙위 사랑꾼 태준이 형! 신앙, 일, 개그 부족함 하나 없는 것 같은 만능키 중앙위 명현이!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해 인내하시고, 늘 칭찬으로 기다려주셨음에 고맙웠고요, 함께 할 수 있었음에 너무 좋았네요♥ 중앙위들의 수고를 알아주심으로 기꺼이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서울대 내 지체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이번 한 학기도 함께 하시며 서울대를 가꿔주신 서울대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민호(전기 18)

독자 투고란

〈햇빛〉

돈은 햇빛이 싫어서 서쪽으로 달아나다
거기서 날 위해 지는 해를 보았네.

그래서 나는 뒤돌아 다시 걸었네,
다시 뜨는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해제]

이 시에서 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화자가 해를 피해 달아났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구속과 심판으로 느끼고 도망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은 동에서부터 떠오르기 때문에, 화자는 해를 피해 서쪽으로 달아난다. 태양은 화자를 내버려두지 않고 따라가며, 이에 화자는 숨 돌릴 틈 없이 계속되는 답답함을 느낀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서편 끝, 아마도 바

닷가에서 화자의 부담감은 절정에 이르지만, 그는 놀랍게도 자신을 쫓아온 해가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것은 그의 반역이 가장 깊고 어두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그에게 값없는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도망쳐도 피할 수 없는 억압과 형벌의 위협이었지만, 하나님은—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죄값을 직접 감당하고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그를 정죄하는 빛을 비추지 않으신다. 자신을 위해 죽은 해를 보며 마음이 감동된 화자는 이제 그가 도망쳤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편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마음은 이제, "당신을 모욕하며 외면했던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분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으로 가득차기 때문이다. 동편 하늘에서 다음날 아침 다시 떠오르는 태양,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돌아온 그를 환한 웃음으로 맞아 주신다.

김혜진(철학 석사과정)

신앙오티 준비팀원의 글

신앙오티 준비기도팀으로
섬기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신앙오티 준비기도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작에 쓸모없는 저를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다만 충성을 바치려 합니다. 기도팀으로서 오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나누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글로 써보려 했는데, 무언가 어색해서 다만 요새 드리는 기도를 옮겨 적고자 합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어서 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없사오나 다만 주님이 일해 주실 때 저는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저의 생각과 계획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스스로 볼 때에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얼 특별히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오니, 다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옆드려 기도할 때에 무궁무진한 축복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항상 주님을 찌르기만 하고 배신하기만 하였는데, 어찌하여 저를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그 인자하

신 눈으로 바라 보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아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지요. 그러므로 더욱 옆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옵나니. 기회를 주셨으니 다만 이 한 몸 모든 사랑과 충성을 다 바쳐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실상 저는 기도를 그리 잘 하는 편도 아니고, 아직 아이에 불과할 뿐이나, 그래도 주님이 항상 저의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오 나의 생명이시여, 주님의 가장 아름다우신 중보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의로 죄를 지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며, 남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 오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다만 바라옵는 것은 오티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배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맞본 이가 어떻게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다만 오티가 이런 장이 되어서, 신입생들이 모두 주님의 피로 가장 내면 깊숙한 곳까지 덮이며,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 일평생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오직 그 중심이 언제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옵소서. 서울대를 뒤집어엎으소서. 다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서울대 전체에 주님의 보혈이 철철 흘러넘치게 덮어주십시오. 서울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기뻐 찬양하며,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이를 더욱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인도에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능케 될 것을 믿습니다. 제 안에서 일해 주셔서, 오티를 준비하는

모든 이 안에서 일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일해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정이 오직 주님의 인도 아래 매끄럽게 나아가고, 방해하는 그 어떤 원수의 공격도 파쇄하며 승리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준비의 과정이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나 깨나 주님 생각하게 하시옵고, 자나 깨나 오티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 몸 불살라 기도하는 데 쓰시옵소서. 그러나 불살라지는 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다만 주님이 제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과 아픔을 알고 싶습니다. 비록 어리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픔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영광을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나니, 다만 우리 서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 신앙오티는 2020년 2월 24-25일 교내에서 1박 2일로 진행하고, 아이자야 씹스티원이 찬양팀으로 와 주신다고 합니다. 준비팀으로 많이 지원해주시고, 새내기들을 위해, 오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영찬(중교 17)

신앙오티 준비팀원의 글

2020신앙오티, <새로운 마음>을 기대하며



안녕하세요, 서기연 가족 여러분! 저는 2020신앙오티기도팀에 참여한 전기정보공학부 19학번 김선우라고 합니다. 오티 기도팀은 내년에 있을 신앙오티를 위해 기도하는 팀으로, 본격적인 오티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오티 준비 과정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티 주제와 본문 말씀, 일정과 대략적인 진행 등을 정했습니다.

저는 올해 있었던 2019 신앙오티에 19학번 신입생으로 참석했습니다. 새터 일정으로 학교에 왔다가 게시판에 붙은 오티 포스터를 보고 신청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찾아간 오티, 만났던 서기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과하게(?) 발랄한 인사를 받았고, 처음 만난 조원들과의 교제는 너무도 편안했어요.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도 엄

는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제 대학 생활이 어떠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은혜가 너무 특별해서, 내년도 오티에도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길 기대하며 기도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티를 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서울대 중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팀과 나누었습니다. 학업과 사역에 지친 재학생들에게는 예수님과 첫사랑의 회복을, 각기 다른 기대를 품고 입학할 신입생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결한 마음을, 꾸준히 수고해주시는 교수님들과 기타 구성원분들께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전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새로이 충만해질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2020학번 신입생들과 함께할 내년도 신앙오티 행사를 기대합니다. 신입생들이 환영받고 하나님 안에서 대학 생활의 방향성을 찾는 것을 넘어, 참여하는 서기연 모든 지체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2020 신앙오티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2월 24일~25일, 1박 2일 동안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진행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에스겔 36:25-26)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믿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빌립보서 2:15-16)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내년도 신앙오티를 준비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또 앞으로 입학할 신입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

김선우(전기 19)

빵나눔 특별기사

캠퍼스 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빵나눔 사역'을 소개한다. 지난 1학기부터 중앙위원단과 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빵나눔 사역은 이번 2학기부터 시행되었다. 아침에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서기연 차원에서 식사대용의 빵을 무료로 나누어주자는 취지에서다. 빵나눔 사역을 실시하는 기간은 9월 초~종강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15분까지 이루어진다. 학생회관 416호 서기연룸에서 오전 8시 아침기도회에 참석한 후, 서를 부근에 빵나눔에 필요한 물품들을 세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1주에 2~3명씩 동참하고 있으며, 개종강예배 등의 연합사역을 앞두고서는 초대장도 함께 나누어주는 등 서기연을 알리는 창구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빵나눔 사역에 함께한 학부생과 중앙위원의 글을 소개한다.

<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으로부터 >



처음 학교에 입학하였을 때에, 저는 막연하게 제가 개인주의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과 다짐이 있었습니다. '섬김'이나 '헌신'과 같은 단어는 제게 익숙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단체, 단대기연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며 오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하는 위치에 오게 된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연이라는 단체도 입학하기 전에 우연찮게 발견한 포스터를 통해 신앙오터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속한 공동체가 모두 캠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캠퍼스에 마음이 많이 가고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관심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서기연에서 참석하는 대의원회의, 아침기도회, 개종강예배 등을 통해서 서울대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님은 서기연으로 모인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전해지도록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잊고 있다가도 주님은 다시금 상기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빵 나눔 사역을 할 때에도, 그 날엔 날씨가 안 좋아서 따로 서 있지는 않고 빵들과 책상을 갖다놓기만 하였지만 그 짧은 시간 중에서도 제 마음이 많이 가난해짐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빵 나눔 사역을 포함해서 제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 결국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 자체에 매몰되어버리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그 자리에 잠깐 멈춰 한 숨 돌리고 뒤를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나의 힘이자 분깃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께 달려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말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며 애타게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뜻도 있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쁘면 기쁜 만큼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동시에 힘들면 힘든 만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 또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에 기쁨을 주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분임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

학부생 빵나눔 섬김이
조지은(사회 18)

< 빵보다 달콤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



빵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 이번 학기 우리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캠퍼스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빵 나눔 사역을 진행했다. 캠퍼스 안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빵과 함께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여름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했고, 배너와 빵에 붙일 스티커를 제작했다. 매주 빵을 주문하고, 월요일 아침 일찍 테이블을 설치하고 나눠주기 때문에 지체들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시작하기 어려운 사역이었다. 감사하게 많은 서기연 지체 분들에게서 섬김이로 신청해주시고, 매주 한 두 분씩 도와주셔서 무사히 한 학기 동안 빵 나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빵 나눔 사역은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학우들도 매주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편하게 빵을 가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빨리 수업에 가느라 학생들이 아침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빵을 반갑게 가져가는 이들을 만날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 개강 및 종강예배를 앞두고는 빵과 예배 초대장을 함께 드렸는데, 초대장을 보고 한 명이라도 더 예배에 왔으면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자라났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아침식사용 빵이 아니라, 우리 캠퍼스 구성원 모두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나감에 따라 주님의 사랑이 서울대 캠퍼스에 전해지기 바란다. 그래서 정말 한 번 경험한 후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 캠퍼스 구성원 모두가 꼭 빠지게 되는 그 날을 꿈꿔본다.

ps. 앞으로도 빵 나눔 사역은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역입니다ㅠㅠ 월요일 아침(8시 30분)에 캠퍼스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서는 서기연 플러스친구로 꼭! 문의주세요~!

중앙위원 빵나눔 섬김이
홍영서(자전 16)

연합총앰티 특별기사

서울대기독인 연합 앰티

지난 11월 15-16일(금-토), 서울대 기독인들이 1박 2일의 연합 앰티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가졌다. 서울대 기독인 연합 앰티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회째로서, 학생, 교수, 간사, 교직원, 학부모를 비롯한 서울대 기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울대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자리로서 기획되었다.

약 35명이 참석한 앰티는 예배-레크레이션-소그룹 모임-전체 모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예배는 최수찬 간사(CCC)의 찬양 인도, 이경건 형제(기독교대학원생모임)의 메시지, 송재준 교수(기독교수협의회)의 기도 인도와 함께 드려졌다. 서기연 중앙위원 유인비(경영 15), 남명현(종교 15) 형제의 주도로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보낸 이후, 앰티에 참석한 지체들은 소그룹 모임 및 전체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허락하실 부흥과 서울대 기독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자정 너머까지 이어진 전체모임은 지난 2학기 개강 부흥사경회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연합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다. 먼저 개강 부흥사경회에 대하여는 “예배의 감격” 뿐만 아니라 “함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곧 “개인의 은혜와 공동체의 은혜가 동시에 임하였다”. 부흥사경회의 은혜는 약 2달여가 되는 현재까지도 “여진”을 남겨 각 지체들의 마음을 은혜로 박동하게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서울대 기독인 지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서울대 기독인들의 연합에 대하여는 “모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여서 “일만 하는 경우에는 소진”될 수 있지만, 관계 중심의 “교제하는 연합”은 우리 “마음이 움직여가는 것”이며 그러한 “하나 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합의 이유는 예수 가족을 꿈꾸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그러한 “연합은 (다른 사람들을) 세움에 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요 13:35).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분투하고 있는 학생 사역자들에게 지지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선교단체, 과/단대모임, 서기연 중앙위원 등으로 “이미 헌신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공급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지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힘들 때 다른 단체들이 서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연합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아름다운 역사이다. 이를 통해 학생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 MT는 서울대 캠퍼스 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였다. “일이 아닌 관계로” 모이는 자리였으며, “MT를 통해 서울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만나주신 은혜를 통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서기연은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진” 공동체이다. 그리고 “최근의 부흥은 지난 수년간의 기도가 쌓여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처럼 1년 단위의 사역 주기로 인한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쌓여가고 기도가 쌓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섬기며, 연속성을 만들어가고, 토대를 다져갈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공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합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은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성취되어 갈 것이다.

〈예배 시간〉



〈전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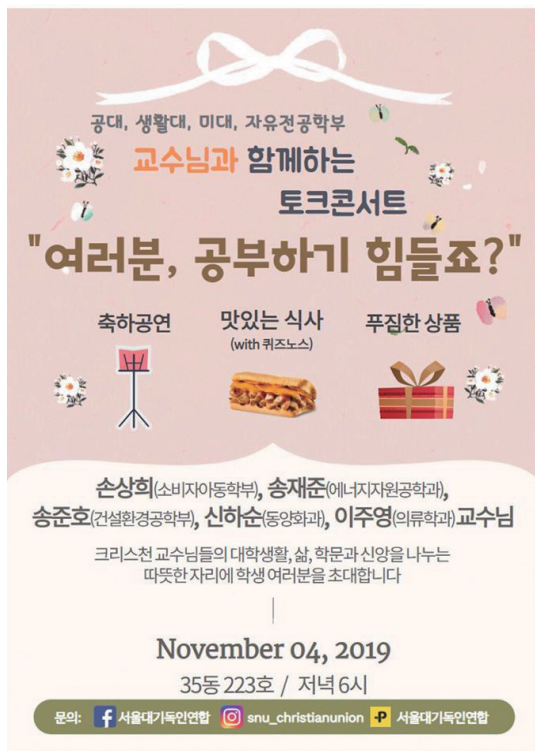
〈전체 모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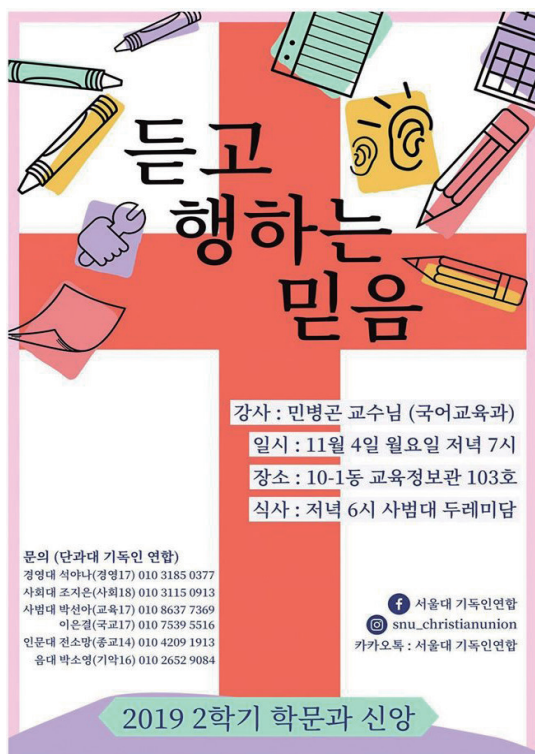
신앙과 학문 행사

〈 학부생 신앙과 학문 〉

2013년부터 매학기 단대기연과 기독교수협의회가 협력하여 초청행사를 열고 있다. 인사사경음(인문대, 사범대, 사회대, 경영대, 음대), 공생미자(공대, 생활대, 미대, 자유전공), 자약수농(자연대, 약대, 수의대, 농대) 3개의 연합으로 나뉘어 단과대기독인연합과 교수가 소통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진행한다. 1학기에는 기독교수와 기독교신입생의 만남을, 2학기에는 영혼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2학기에는 11월 4일(월)에 신앙과 학문이라는 주제로 영혼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공생미자 연합은 오후 6시부터 35동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약 30명 정도가 모였으며, 송재준(에너지자원공학과), 송준호(건설환경공학부), 신하순(동양학과), 이주영(의류학과) 교수 4명이 패널로 나와 학부생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었다.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받은 질문과 현장에서 포스트잇으로 적은 질문을 정리하여 실제로 학부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에는 송준호 교수가 '공부, 그 새로운 날갯짓'이라는 주제로 약 15분간 메시지를 전했다. 공부를 일, 창조, 돌봄 이 세 가지 활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원을 향해 새로운 날갯짓을 펼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인사사경음 연합에서는 10-1동 교육정보관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식교제는 오후 6시에 사범대 두레미담에서 진행한데 이어 약 37명의 인원이 본 행사에 참여하였다. 말씀은 국어교육과 민병곤 교수가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약 3-40분간 전하였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길게 가졌다. 강연과 질의응답의 내용은 강연자의 전공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천 학자의 역할까지 두루 망라하였다.



자연대 약대 수의대 농생대가 함께 하는,

양자 물리학자가 만난 하나님

정현석 교수님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일시
2019.11.04
6:00p.m

장소
사반 식사후
목암홀 (500동)

영화관람권 추천
추첨을 통해 2매씩 3분에게

신앙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물리학 교수님이 말해주는 신앙

정현석 교수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문의: 서울대기독교연합회 @ snu_christianunion

자약수농 연합은 6시에 사반에서 식교제를 진행한 후 500동에서 '양자 물리학자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행사가 이루어졌다. 특송은 새벽빛(약대기연)에서 섬겨주었으며, 새로 온 영혼들에게는 기독교 서적도 전달하였다. 약 50명이 참여한 본 행사에서는 물리천문학부 정현석 교수가 말씀을 전하였다. 정현석 교수는 양자물리학을 연구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God-shaped vacuum)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에 둔다는 것, 따라서 용담이를 파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전환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등의 말씀을 전하였다.



〈기독교대학원생모임 신앙과 학문〉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모임의 친구초청 행사 〈신앙과 학문〉이 11월 13일(수) 오후 7시에 열렸다. 이번 〈신앙과 학문〉은 본래 수요일연예배가 드려지던 장소에서 예배와 강연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로 시도되었다.

가벼운 찬양으로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이후, 치의학대학원 류현모 교수가 '시대의 이해-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은 기독교 세계관과 함께 이슬람,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코스믹 인본주의(뉴에이지),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비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과학을 비롯한 학문적 작업들과 기독교 세계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연자와 청중들이 소통하기도 하였다. 이후 행사는 경품추첨과 후속모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원생과 교수를 비롯하여 약 55명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비신자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의 요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9학년도 2학기 친구 초청 행사

신앙과 학문

☆ 강연: 류현모 교수님 (치의학대학원)

☆ 일시: 11월 13일(수) 오후 7시
(오후 6시부터 간단한 저녁식사 제공 예정)

☆ 장소: 28동 101호

☆ 문의: 이경건(화학교육과 박사과정, 010 6888 6108)
정성지(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010 2696 6321)

주관: 서울대학교 기독교수련회 주최: 서울대학교 기독교대학원생모임

《진리는 나의 빛》 독자 기고란

서울대학교 학부생 혹은 학내 구성원 분들의 간증 혹은 신앙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의 글 기고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글/기독교 단체 소개 및 간증 모두 괜찮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을 읽는 분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열정과 용기를 북돋아 줄 독자 분들의 글을 기대합니다.

문의: 이은혜 학생기자(010-2208-3684, leh1288@gmail.com)

2019-2학기 개강예배 이모저모



▲ 지난 9월 30일,
개강예배가 드려진 문화관 중강당



▲ 아이자야 섹스티원의 찬양인도



▲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 말씀 후 진행된 합심기도



▲ UBF에서 섬겨준 특송



▲ 각 단과대를 향한 축복시간



▲ 이용규 선교사님께 전달드린 감사장



▲ 식교제 준비로 섬겨준 SFC



▲ 예배 후 단과대별로 진행된 식교제